

“신이 되면서 미숙한 습작·문장 과감히 버렸죠”

등단 12년만에 첫 시집 낸 고흥 출신 신중철 시인

시집 ‘나는 다른 종족이다’에 고향·새 등 다수 실려
“내게 시란 의미를 던져주는 상처 많은 풍경과 같아”

“신이 되면서 버리지 못한 미숙한 습작과 문장들을 어느 정도 버릴 수 있었습니까. 좋은 문장을 새롭게 ‘끓여내기’ 위해서는 불쏘시개로 써야 할, 버리는 문장이 있어야 했죠.”

등단 이후 12년 만에 첫 시집을 낸 시인이었다. 그는 “제 작품의 깊이가 아직 낮았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낮췄다.

고흥 출신 신중철(50) 시인을 보면서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떠올랐다. 가벼운 시가 넘쳐나는 세상에, 시인이라는 명함을 너무도 손쉽게 교환하는 문단의 풍토에서, 그와의 대면은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다.

신중철 시인이 건넨 첫 시집 ‘나는 다른 종족이다’(문학들)는 깊이와 수사, 율림, 상징, 의미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른 수준을 보였다. 한마디로 수작이 다수 실려 있었다.

그의 짧은 머리칼과 동적한 체구는 얼핏 고전적인 시인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얘기를 나눌수록 내면에는 어디든 여러 감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외강내유형의 이미지는 자연스레 작품집 제목 ‘나는 다른 종족이다’를 떠올리게 했다.

왜 오랫동안 작품집을 내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그는 “마흔쯤 되니까 문장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마음과 뜻을 실어 나르는 데 버겁지 않게 되더라”며 웃었다. 그러면서 “20, 30대 때는 상황의 본질을 송곳으로 찌르고 들어가는 문장이 아니라 제격인데 그렇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문학들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온 그는 신이 되기 전에는 꼭 시집을 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문단 등단이 마흔이 꼭 차기 전에 치러야 할 마땅한 의례였다면, 지금의 작품집 발간은 또 다른 차원의 의례”라는 거였다.

‘나는 다른 종족이다’라는 제목의 강렬함에 대해 그는 “자신을 규정하는 말”이라며 웃었다. 사실 그 제목은 ‘틈’이라는 작품의 한 구절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틈’에는 어둠, 아침, 상처, 사랑 등의 말이 길항하고 있을 터인데, 시인은 아침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존재나 다름없을 터였다. 그러면서 “마침내 털 풀린 얼얼한 고백을 사랑이라” 믿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존재인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기자에게 ‘나는 다른 종족이다’라는 제목은 첫 시집을 펴낸 다짐이자 시를 향한 엄숙한 맹세로 들렸다. 시인의 운명인 것



이다. 빛이 아닌 어둠에서 상처를 더듬으며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숙명 말이다.

그 때문이었을까. 시인은 “나는 출항했으나/ 내 말들은 굵은 소나무처럼/ 밤 깊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발을 등에 지고 군불을 때고 있다”(‘고향’)고 고백한다. ‘수박’에서는 “모서리 없는 슬픔이 똑똑 눈물을 흘리는 게 보였다”며 처연하게 노래한다.

작품 속 화자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현실의 시인이 들려주는 그의 시 세계, 아니 지나온 삶처럼 다가온다. 특히 ‘새’라는 작품은 사물의 정곡을 찌르는 강렬한 율림을 선사한다. “본질적으로 모든 화가의 그림이 자화상이듯/ 모든 시는 죽은 새를 그려내는 일”이라는 절창은 50세에 비로소 시집 한권을 세상에 내민 그의 시적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신 시인이 시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전남대 국문과(89학번)에 입학하고서였다. 당시 그는 국문과 동아리 비나리 선배들과 자작시 시평과 사회과학 학습을 했다. “혼자 생각하거나 산길을 걷거나 좋은 작품을 만나면 직접 노트에 적어보고 했다”는 말에서 창작의 기초를 다지는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

“시골 부모님이 보내주시던 2~3만원 용돈으로 먼저 시집을 사는 바람에 친구들로부터 구박을 듣고 했죠. 평소에는 술 안 먹고 지는 돈 생기면 시집부터 산다는 구박 말이예요(웃음).”

그렇게 그의 문학공부는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진행됐다. 무엇보다 대학 1학년(89년) 때 이산하 시인 ‘한라산’ 연대시를 낭송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그 해 김경운, 임동학, 이봉환 같은 선배들이 5월을 알리는 ‘벽시’를 썼는데 신입생이었던 그는 동료들과 급급로 골목 여기저기에 붙였다.

현재 그는 국어교습소를 운영하며 창작에 매진하고 있다. 국어를 가르치다 보니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게 된다고 한다. 가능하면 너무 늦지 않게 두 번째 시집을 펴낼 계획도 갖고 있다.

“40, 50대를 누구는 자신의 누추함에 직면하게 되는 나이라고 하더군요. 천 길 낭떠러지 위에서 서 있는 듯한 시기라는 말이지요. 이것을 현명하게 건너가는 방법은 응시와 조망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는 의미를 던져주는 상처 많은 풍경과 같지 않나 싶어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재곤 서예 초대전 28일까지 광산생활문화센터

우정(宇正) 김재곤 서예 초대전이 오는 28일까지 광산생활문화센터 2·3층에서 열린다.

광산문화원 예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농업경(柳巖經) 경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 등 모두 22점을 전시 중이다.

오랫동안 사진작가로 활동했던 김 작가는 삶의 소중한 지혜가 담긴 선현들의 글을 후대가 정신적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 2013년부터 서예 작업에 몰두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충무공 이순신의 한시와 유성룡의 ‘징비록’에 등장하는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비롯해 공자와 맹자의 중요 대목을 다양한 서체로 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은 8폭 병풍으로 제작한 ‘농업경’이다. 예서·전서·초서 등 6서 필법을 모두 활용해 제작한 작품으로 경전에 등장하는 다양한 지혜를 2개월여 간에 걸쳐 기획하고 썼다.

김 작가는 잡지 ‘호남인’ 사진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영호남여성문화교류전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2-941-3377. /김민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전당, 동구지역 명장·명인 초청 간담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 이하 ACC)은 최근 광주시 동구지역 명장·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자기공예(김옥수), 금속공예(고경주, 신경식), 목질공예(최상원), 국악관악기제작(권봉현), 조각보(이남희), 한복제작(정인순), 전통채색화(김성수), 수제화 제작(임종찬), 미용명장(김진숙, 정장이)을 비롯해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7명이 참석했다.

ACC는 동구 명장·명인들에게 전담투어를 시작으로 아시아컬처마켓(ACM) 사업 설명회와 ACC와 연계할 수 있는 아

이디어 제안 등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아시아컬처마켓(ACM)은 지역 문화예술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공유·협업을 위한 창조적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심을 끌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ACC는 명장·명인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대표 문화상품을 개발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첫 단계로 오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동구 명장·명인들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시회를 통해 문화상품의 가치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채택해 문화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연극 ‘친정엄마랑’ 보며 온가족 함께 웃어요

다음달 31일까지 충장아트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연극 ‘친정엄마랑’(사진)이 오는 3월31일까지 광주 충장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코미디연극 ‘친정엄마랑’은 개그맨과 가수를 겸하고 있는 ‘나물라패밀리’(김경욱·김태환·고정환)가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연극이다. ‘친정엄마랑’은 1시간 30분 동안 관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늦은 나이에 예쁜 딸을 얻은 엄마는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지만 가난 때문에 부족한 속에 키운 것 같아 항상 미안한 마음이다. 딸은 나이 많은 엄마를 부끄러워했지만 결혼해 엄마가 된 뒤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 딸이 친정엄마를 찾아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번 연극에는 SBS 공채 개그맨 김유현



이 ‘친정엄마’ 역할을 맡았다. 김유현은 감칠맛 나는 할머니 연기를 하며 웃음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뮤지컬 ‘쌍쌍옥조와 꼬끼리 페르난도’, ‘구름빵’ 등에서 주연을 맡은 이유영이 딸을 연기한다. SBS 공채 개그맨 출신 양종인은 1인 7역을 맡아 극의 감초 역할을 한다.

만 8세 이상 관람가. 화~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6시, 일요일 오후 4시(3월1일 오후 4시, 3월24일·31일 오후 3시·6시, 월요일·3월30일 휴무). 한편 충장아트홀에서는 오는 4월6일부터 연극 ‘내모든집’이 공연된다. 문의 1600-6689.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 창작희곡 공모전

서구문화원, 4월30일까지 마감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은 광주의 역사 문화자원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연극으로 펼쳐내기 위한 ‘제1회 광주시 창작희곡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원자격은 전국의 신인 및 기성작가 등 제한이 없으며 인물, 자연, 역사, 축제 등 광주시와 관련된 소재로 90분간 공연 가능한 분량의 창작희곡이면 된다. 또한 언론이나 잡지, 대학 졸업작품은 물론 각종 연극제에 발표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하며 트라이아웃이나 쇼케이스 작품이 아니어야 한다.

작품 마감은 오는 4월 30일까지며 희곡 5부를 제출하고 파일은 별도 제출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작품 표지에는 작품명만 기재하고 작가의 이름을 표기하면 안 된다. 대상은 1편 상금 150만원, 우수상은 50만원이다. 문의 062-681-417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술동아리 등 지원사업 공모 26일 설명회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이 2019년도 예술동아리, 유아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먼저 ‘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은 문학·음악·미술·공예 등 10개 분야 아마추어 동아리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예술 코디네이터를 모집 선정해 동아리 교육, 축제 참여 등을 돕는다. 약 30개 단체에 각각 500만~7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유아 단계부터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운영 단계 중 한 개의 리드 단체를 선정, 유아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도 지원한다. 모두 3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단체별 약 8000만 원을 지원하며 연수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경

우 약 3000만 원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 인력 성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인턴십 운영을 토대로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할 예정이다.

‘예술동아리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3월 6~7일(오전9시~오후6시)까지 이메일(gjarte@hanmail.net)로 서류제출 후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소담방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3월 4일부터 7일(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공모사업 설명회는 오는 26일 오후 3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문의 062-670-5762-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